



전화: 86-10-6505-2671/3 이메일: beijingk@kita.net

1 시진핑 주석, 〈국가안보 시스템 구축 강화〉 발표

- 5월 30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제20기 중앙국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국가안보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발표함
 - 동 회의에서 시 주석은 중국이 직면한 국가안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며, △정치 안전을 수호 △네트워크와 인공지능(AI) 데이터에 대한 안보 수준을 개선 △국가안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시스템 건설을 강화 △국민 대상 국가안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
 - 한편, 동 회의에서 〈국가안보 위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관련 의견〉(《加快建设国家安全风险监测预警体系的意见) 및 〈국가안보 교육의 전면 강화에 관한 의견〉(《关于全面加强国家安全教育的意见》) 등의 문건이 통과되었음

자료원 : 신화망

http://www.news.cn/politics/2023-05/30/c 1129657348.htm

2 中, 〈신에너지 자동차 취득세 감면책 지속 실시〉 발표

- 6월 2일, 국무원은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신에너지 자동차 취득 감면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함
 - 동 회의에서는 또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배치를 더욱 최적화하고 배터리 시스템, 신형 섀시 구조, 자율주행 체계 등 중점분야의 핵심기술 연구를 강화하며 전기 자동차 배터리 재활용 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고 지적함
 -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~4월 신에너지 자동차의 생산 및 판매량은 각각 229만 1,000대와 222만 2,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42.8% 증가했고, 신에너지 자동차 수출은 34만 8,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70%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

자료원 : 신화망

http://www.chinatax.gov.cn/chinatax/n810219/n810780/c5205123/content.html

3 中, 〈개인정보 해외반출 표준약관〉 발표... 6월 1일부터 시행

- 5월 30일,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은 〈개인정보 해외반출 표준약관〉(《个人信息出境标准合同 备案指南》)을 발표하여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
- 동 표준약관은 개인정보 해외반출 표준약관의 적용 범위, 등록 절차, 등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했으며 주요 내용으로 △개인정보 처리자는 법에 따라 개인정보 해외반출 표준약관을 체결한 후에야 해외에 제공 가능 △개인정보 처리자가 표준약관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해외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,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: ●국가 핵심 정보 인프라 운영자는 제외대상 ②개인정보를 처리한 건수가 누적 100만 명 미만 ③1월1일부터 해외에 제공한 개인정보 누적 10만 명 미만 ④1월1일부터 해외에 제공한 민감한 개인정보(부동산 정보, 신용기록 정보) 건수 누적 1만 명 미만 △개인정보 해외반출 등록 절차: 개인정보처리자는 표준약관 발효일로부터 시작하여 10근무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성(省)급이상 사이버정보판공실에 제출하여 등록을 진행 △성(省)급 사이버정보판공실은 15근무일 이내에 자료 심사를 완료하고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심사결과 등에 대해 통보 △개인정보 처리자는 제출한 자료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며,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 등임

자료원 :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

http://www.cac.gov.cn/2023-05/30/c_1687090906222927.htm?eqid=f5881bdd0009090600000046476a080

4 中 상무부, 6월 2일 (RCEP 15개 서명국에서 전면 발효) 발표

- 중국 상무부는 6월 2일부터 필리핀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가 발효됨에 따라 아세안(ASEAN;동남아시아국가연합) 10개국, 한·중·일, 호주, 뉴질랜드 등 15개 서명국에서 RCEP가 전면 발효되었다고 선포함
- 중국 상무부는 RCEP의 전면 발효는 지역경제 통합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동아시아 무역·투자 자유화를 추진시키며 지역과 세계 경제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함
- 한편,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중국과 RCEP 회원국과의 수출입 규모는 12조 9,500 위안(약 2,380조 원)으로 전년 동기 대비 7.5% 증가했으며, 이는 중국 대외 무역 수출입 총액의 30.8%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됨

자료원 : 상무부

http://www.mofcom.gov.cn/article/xwfb/xwrcxw/202306/20230603413692.shtml https://china.huangiu.com/article/4D8rP1GA0BO

5 美-대만 무역협정 체결... 중국정부 강한 반대입장 표명

- 중국신문망은 대만 민진당과 미국이 6월 1일 '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·대만 이니셔티브'에 따른 1차 협정에 서명한 내용을 보도함
- 동 협정에는 통관절차 간소화, 규제개선, 물류 리드타임 단축 등을 통해 미국 기업이 대만
 시장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정책 조항이 포함됨
- 이에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 주펑렌(朱凤莲)은 "중국은 미국과 대만지역이 주권적의 미와 공식적 성격을 담은 협정에 서명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"고 밝혔고, 상무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"대만은 중국 영토 중 불가분의 일부로, 미국은 중국 대만과의경제 및 무역 관계를 신중하게 처리하고 공식 왕래를 중단할 것"을 촉구함

자료원 : 상무부

http://www.mofcom.gov.cn/article/xwfb/xwfyrth/202306/20230603413963.shtml https://www.chinanews.com/gn/2023/06-02/10018435.shtml

6 베이징市, 〈인공지능 발전 추진책(2023-2025년)〉 발표

- 5월 30일, 베이징시는 〈인공지능 발전 추진책(2023-2025)〉(《北京市加快建设具有全球影响力的人工智能创新策源地实施方案 (2023-2025年》)을 발표함
- 동 추진책의 주요 내용으로 △2025년까지 베이징시 인공지능 핵심 산업 규모 3,000억 위안(한화 약 55조 원) 달성, 산업 성장률 10% 이상 유지 △2025년까지 인공지능 산업 관련 규모 1조 위안 (약 183조 5,000억 원)을 달성하고 유니콘기업 5~10개사 신규 육성 △인공지능 칩 개발 기술혁신 추진 △인공지능 관련 인재 서비스 정책 및 조치를 수립하고 기업의 인재육성을 장려하며 대학교의 다양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 등임

자료원 : 베이징시 인민정부

https://www.beijing.gov.cn/zhengce/zhengcefagui/202305/t20230530_3116889.html

7 상하이市, 〈민간 투자 발전 지원 확대 20개 조치〉 발표

■ 5월 30일 상하이시 발개위는 〈민간 투자 발전 지원 확대 20개 조치〉(《上海市加大力度支持民间投资发展若干政策措施》)를 발표함

- 동 조치의 주요 내용으로 △민영기업이 국가 중점 프로젝트 투자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정부 입찰에서 동등하게 대우하고 시장진입 장벽 설정 금지 △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영세기업, 자영업자 대상 토지 사용세 50% 인하 혜택 제공 △민영기업 대상 대출 금리 인하 △민영기업이 집적회로, 바이오 의약품, 인공지능 등 산업에 투자하도록 지원하고 핵심 산업에 종사하는 인재에 대해 특별 지원정책을 시행 △재생가능에너지 및 신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 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는 것 등임
- 한편, 상하이시 발개위 주임 구쥔(顾军)은 올해 1~4월 상하이의 민간 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19.8%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함

자료원 : 상하이시 발개위

https://fgw.sh.gov.cn/fgw_gfxwj/20230530/416411e6f22f42b4975c754c05c545a5.html https://news.cnstock.com/news,bwkx-202305-5068469.htm